# 주윤발, 검은 마스크 쓰고 홍콩시위현장 포착

홍콩 영화배우 주윤발(64·사진 원 안)이 홍콩에서 열린 반중 시위 현장에 참여한 모습이 포착돼 화제다.

10일 홍콩 현지 매체에 따르면, 주윤발은 지난 4일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홍콩 거리 시위에 참여했다. 이날 일부 팬들이 주윤발을 알아보고 사진을 함께 찍자고 요청하기도 했고, 주윤발은 흔쾌히 응했다는 후문이다.

이날은 캐리 람 홍콩 행정정관이 5일 0시부터 사실상 계엄령에 해당하는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 를 발동해 복면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을 때라 주윤발의 참여에 의미가 더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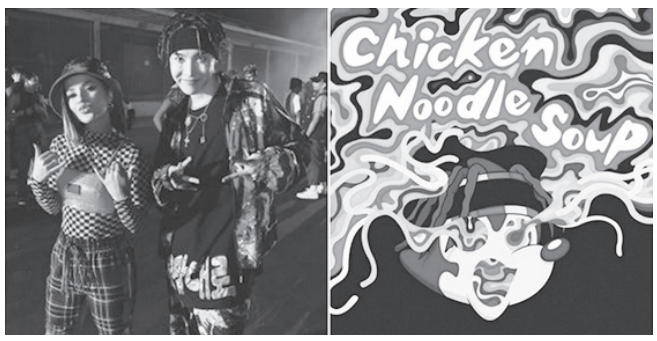
복면금지법은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이 얼굴을 가려 신원 확보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복면금지법 이후 이에 반발한 시민들이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주윤발은 지난 2014년 홍콩에서 열린 민주화시위 '우산혁명' 때도 홍콩 독립을 지지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문제 삼아 주윤발에게 영화 및 TV 출연 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주윤발은 "괜찮다. 돈을 좀 덜 벌면 된다." 고 반응해 홍콩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주윤발은 홍콩영화 전성기를 이끈 스타다. 1976년 영화 '투태' 로 데뷔하여, '영웅본색' , '와호장룡' 등에 출연,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모았다.

주윤발은 지난해 홍콩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수 천억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뜻을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주윤발은 기부에 대해 "돈은 내 것이 아닌, 잠시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돈은 행복의 원천이 아니다." 고 말했다.

# 제이홉 솔로곡 '치킨 누들 수프' 빌보드 '핫100' 진입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25·본명 정호석)의 솔로곡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 에 진입했다.

7일 빌보드 뉴스에 따르면 제이홉의 '치킨 누들 수프' (Chicken Noodle Soup)는 다음 날 업데이트할 최신 '핫 100' 차트에서 81위를 기록했다. 방탄소년단 멤버가 솔로곡으로 '핫 100' 에 오르기는 처음이다. 또 한국 아티스트로는 여섯번째, 솔로 가수로는 싸이와 씨엘에 이어 세 번째 진입이다.

'핫 100' 은 미국 내 스트리밍과 라디오 방송 횟수, 판매 데이터 등을 합산한다.

닐슨뮤직에 따르면 '치킨 누들 수프' 는 스트리밍 970만 건과 다운로드 1만1천 건을 기록했다. 이 곡은 제이홉이 사운드클라우드 등에 무료로 공개한 노래임에도 음원 플랫폼에서 이 같은 성적을 냈다.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이 '핫 100' 차트 세력으로 입지를 공고히 한 가운데, 그룹 개별 멤버들 역시 그 파워를 입증하고 있다." 고 보도했다.

'치킨 누들 수프' 는 제이홉이 미국 가수 베키 지(Becky G·22)와 작업한 곡으로 지난달 27일 공개됐다. 곡 공개 후 전 세계 팬들 반응은 뜨거웠다. 틱톡의 방탄소년단 계정에 공개된 제이홉의 댄스를 따라 추는 영상을 '#CNSchallenge'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는 '치킨 누들 수프 첼린지' 가 잇달았다.

앞서 이 곡은 영국 오피셜차트 '싱글 차트 톱 100' 에서 82위를 기록했다.

# 로버트 드니로, 성차별 언행으로 피소

배우 로버트 드니로(76)가 성차별적 언행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소송을 당했다.

2008년부터 2017년 드니로와 함께 캐널프로덕션에서 일했던 여성 직원 그레이엄 체이스 로빈슨(37)은 최근 성차별과 여성에 학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 혐의로 드니로를 상대로 1천2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캐널프로덕션은 드 니로가 영화 제작을 위해 설립한 회사다.

로빈슨은 "드니로가 성차별 관습에 얽매여 여성과 남성 직원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았으며 여성 동료들을 천대하고 걸핏하면 여자를 비하는 욕설을 퍼부었다. 또 등을 '긁어달라' , '넥타이를 매달라' , '호텔 방으로 들어와 깨워달라' 는 등 신체 접촉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다." 라고 주장했다.

로빈슨은 "드 니로가 자신을 '오피스 와이프' 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며 "드니로는 아무 거리낌 없이 여성 직원들의 엉덩이를 치고 다녔으며 자신도 성차별적 언행과 성희롱의 피해자 중 한 명" 이라고 말했다.

드니로 측은 "제기된 혐의들은 드니로를 공격하기 위해 로빈슨이 지어낸 것이며 불합리하다." 고 말했다. 앞서 드니로는 로빈슨을 회사 공금 유용과 근무 태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1285호 숫자퍼즐 정답

| | | | | | | | | |
|---|---|---|---|---|---|---|---|---|
| 8 | 2 | 3 | 1 | 4 | 5 | 9 | 6 | 7 |
| 4 | 5 | 9 | 3 | 6 | 7 | 1 | 8 | 2 |
| 6 | 7 | 1 | 8 | 2 | 9 | 3 | 4 | 5 |
| 9 | 6 | 7 | 2 | 1 | 8 | 4 | 5 | 3 |
| 1 | 8 | 5 | 9 | 3 | 4 | 2 | 7 | 6 |
| 2 | 3 | 4 | 5 | 7 | 6 | 8 | 9 | 1 |
| 3 | 9 | 6 | 4 | 5 | 2 | 7 | 1 | 8 |
| 5 | 4 | 2 | 7 | 8 | 1 | 6 | 3 | 9 |
| 7 | 1 | 8 | 6 | 9 | 3 | 5 | 2 | 4 |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풍수지리(風水地理)와 수맥파(水脈波)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필자에게 몇 년에 한 번씩 꼭 풍수지리와 수맥 감정을 의뢰하는 백인 미국인이 있다. 이 친구는 현재 의료 분야의 전문직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고급 아파트나 주택을 몇 년에 한 번씩 새로 리스계약을 하면서 이사를 다니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를 가기 전에 꼭 필자에게 먼저 풍수적인 진단과 수맥 감정을 확인하고 이사를 다니는 것이다. 이 친구는 필자를 만나기 전부터 동양의 풍수지리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나름대로 책도 많이 보고 연구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 알려진 풍수적인 정보들은 보통 집안의 인테리어를 강조하거나 벽의 색상이나 생활 소품을 강조하는 형태로 소개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풍수지리를 하는 것이 집안에 소리가 나는 종을 걸어두거나 인테리어 소품이나 생활 화초를 두는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인테리어를 강조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풍수지리(風水地理)가 아닌 것이다. 풍수지리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터를 잡는 학문(學文)인 것이다. 풍수지리적으로 터가 좋아야 자신과 가족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터가 좋지 못하다면 아무리 인테리어를 잘해 놓고 산다고 해서 풍수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고 산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여하튼 필자에게 풍수진단을 의뢰하는 이 친구도 처음에는 어떤 소품을 집안에 두어야 하는지 필자에게 물어보곤 했는데 필자가 풍수지리는 인테리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집터를 찾는 학문이라는 설명을 듣고 나서부터 자기가 이제까지 알던 풍수지리는 잘못된 개념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집터를 선정할 때에 풍수적인 감정과 더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집안에 흐르는 수맥파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수맥파는 명칭처럼 지하에 물이 흐르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파장이 흐르는 곳을 말하는데 사람이 수맥파가 흐르는 곳에서 장기간 잠을 자거나 생활한다면 인체의 저항력을 약화시키게 되고 그러한 것이 오랜 기간 쌓이게 된다면 훗날 감당하기 힘든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맥파는 동판과 같은 것으로 절대로 막아지는 것이 아니고 피하는 것이 상책(上策)인 것이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평생사주 총운 | 직업, 사업, 재물 | 궁합, 애정
상호, 이름 작명 | 풍수지리 출장 감정 | 수맥 탐사 전문

예약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 역학 학술원